



Time *Re* gained

되찾은 시간

2025. 11. 8. - 11. 22 
진 승 탁 개 인 전

망각과 무의식의 틈에서 '되찾은 시간'

최광진(미술평론가)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과거는 정말 사라진 것일까? 한때 내 삶의 전부였던 회로애락의 조각들이 망각의 심연으로 가라앉고, 무의식의 아득한 지층 속에 켜켜이 쌓여 잠들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의 존재조차 잊고 살아간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아무도 지속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멈출 수 없다. 우리가 소중하게 여겼던 순간들도 시간의 잠식에 기억마저 희미해지고, 어느덧 망각의 강을 건너게 된다. 이것이 우리가 인생의 무상함 과 허무함을 느끼는 이유일 것이다.

그러나 마르셀 프루스트가 홍차에 적신 마들렌 조각을 통해 유년 시절의 기억을 되찾았듯 이, 어떤 특정한 냄새나 빛, 소리 같은 낯선 감각이 잠재된 기억의 파편을 일깨워 잃어버린 기억이 갑자기 떠오를 때가 있다. 그것은 어린 시절의 행복했던 기억도 있지만, 때로는 들추어내기 싫은 불쾌한 기억일 수도 있다.

진승탁의 작업은 이처럼 자신의 무의식에 잠재된 어린 시절의 기억을 불러내고, 그것을 재 구성하는 일에서 비롯된다. 전주 인근의 시골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그는 농사와 방앗간을 하는 큰집에서 여름과 겨울 방학을 보냈다. 그때 사촌 형과 들판과 개천, 논두렁과 제방에서 뛰 놀던 기억은 지금은 경험하기 어려운 시골에서의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 있다. 특히 유난히 호기심이 많아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관찰하는 것을 좋아했던 그는 장수하늘소와 다양한 곤충 등을 채집하는 것을 좋아했고, 토란잎에 떨어지는 물방울이 이리저리 튀기며 반짝이는 모습이나 커다란 소의 눈망울을 흥미롭게 응시하기도 했다. 그리고 학교에서 돌아오면 언제나 재봉틀로 천을 자르고 무언가를 만들고 계셨던 어머니의 모습에서 편안함을 느끼곤 했다.

그런가 하면 불쾌하고 수치심이 느껴지는 기억도 있다. 그의 작품에는 목욕하는 장면이 유난히 많이 나오는데, 그것은 초등학교 저학년 때, 무더운 여름날 어머니가 마당에 있는 공용 펌프 옆에서 팬티만 입고 동생들과 함께 세워놓고 목욕을 시켜주는 장면이다. 그때 지나가던 동네 어른들이 악을 올리자, 그는 창피해서 팬티가 벗겨지지 않도록 부여잡았고 어머니는 팬티를 내려서 씻기려 했던 수치스러운 기억이다. 또 어린 시절에 같이 뛰어놀던 누나가 갑자기 뇌염으로 죽은 후에는 그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 그는 늘 무언가 두 개씩 들고 누나를 찾아다녔다고 한다. 그리고 아버지가 60세의 나이로 갑작스럽게 사망하자 장남인 그는 막중한 책임감과 더불어 큰 정신적 상처를 받게 된다. 그의 작품에서 아버지는 언제나 날개 달린 천사의 모습으로 등장한다. 그의 작품은 마치 단단한 돌담 틈에서 꽃이 피어나듯, 망각과 무의식의 틈에서 길어낸 빛바랜 이미지들이다. 그는 이런 이미지들을 생생하게 소환하여 캔버스에 현재와 과거가 중첩된 비선형적인 방식으로 재배치한다. 여기에 다소 연관성이 희박해 보이는 사진과 영문으로 쓴 글씨까지 삽입되어 여러 파편적인 이미지가 뒤엉켜 하나의 일관된 서사가 없는 복잡하고 다층적인 시간성을 드러낸다. 이것은 단순히 단지 과거의 기억을 회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물리적 시간과는 달리 과거와 현재, 현실과 상상을 동시에 넘나드는 의식의 시간을 통해 자아를 재구성하려는 그의 회화적 전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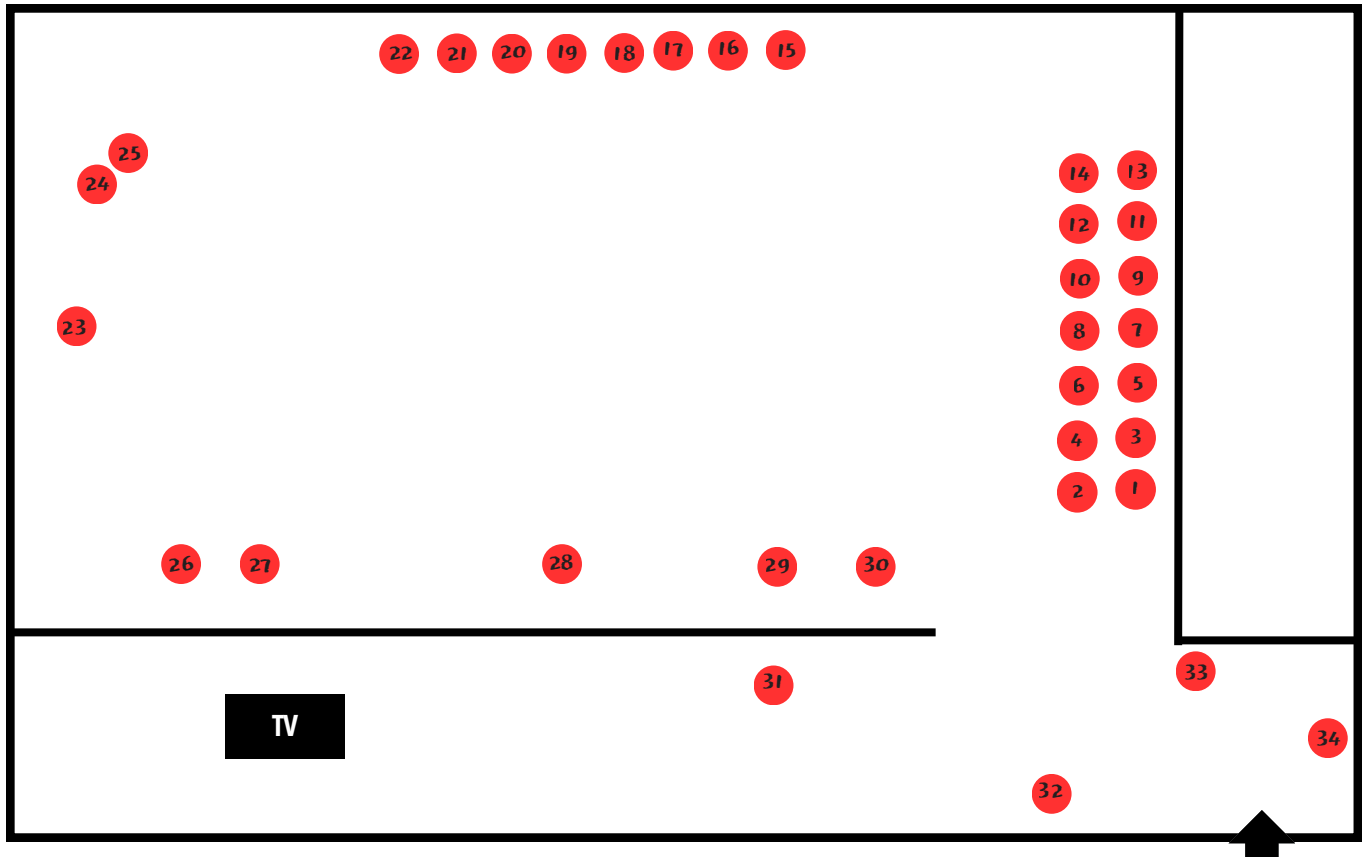
베르그송이 주장했듯이, 의식의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가 선형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는 언제나 현재와 함께 있으며 과거는 지속으로 현재화되고, 현재로서 다시 생성된다. 그렇다면 과거는 사라진 게 아니라 의미의 재해석을 통해서 진리를 발견하고 의식의 성장을 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프루스트가 말한 바 있듯이, 우리가 잃어버린 시간을 되살리고,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누구보다도 섬세하고 예민한 감수성을 지닌 진승탁은 뜻밖에도 공대를 진학했다. 그리고 졸업 후 전공과 상관없이 40년 가까이 서울에서 크로네 제과점을 운영하며 빵 장인으로 살아왔다. 그가 틈틈이 그림을 시작한 것은 불과 몇 년 되지 않았고, 이번이 그의 첫 개인전이다. 비록 뒤늦게 시작한 그림이지만, 그는 프루스트처럼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작업을 통해 잃어버린 기억을 되살려내고 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해서 혹은 사회화 과정에서 만들어진 가면을 벗어던지고 진짜 자기의 정체성을 되찾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인생의 제2막을 시작하는 환갑에 열리는 그의 역사적인 첫 개인전은 '되찾은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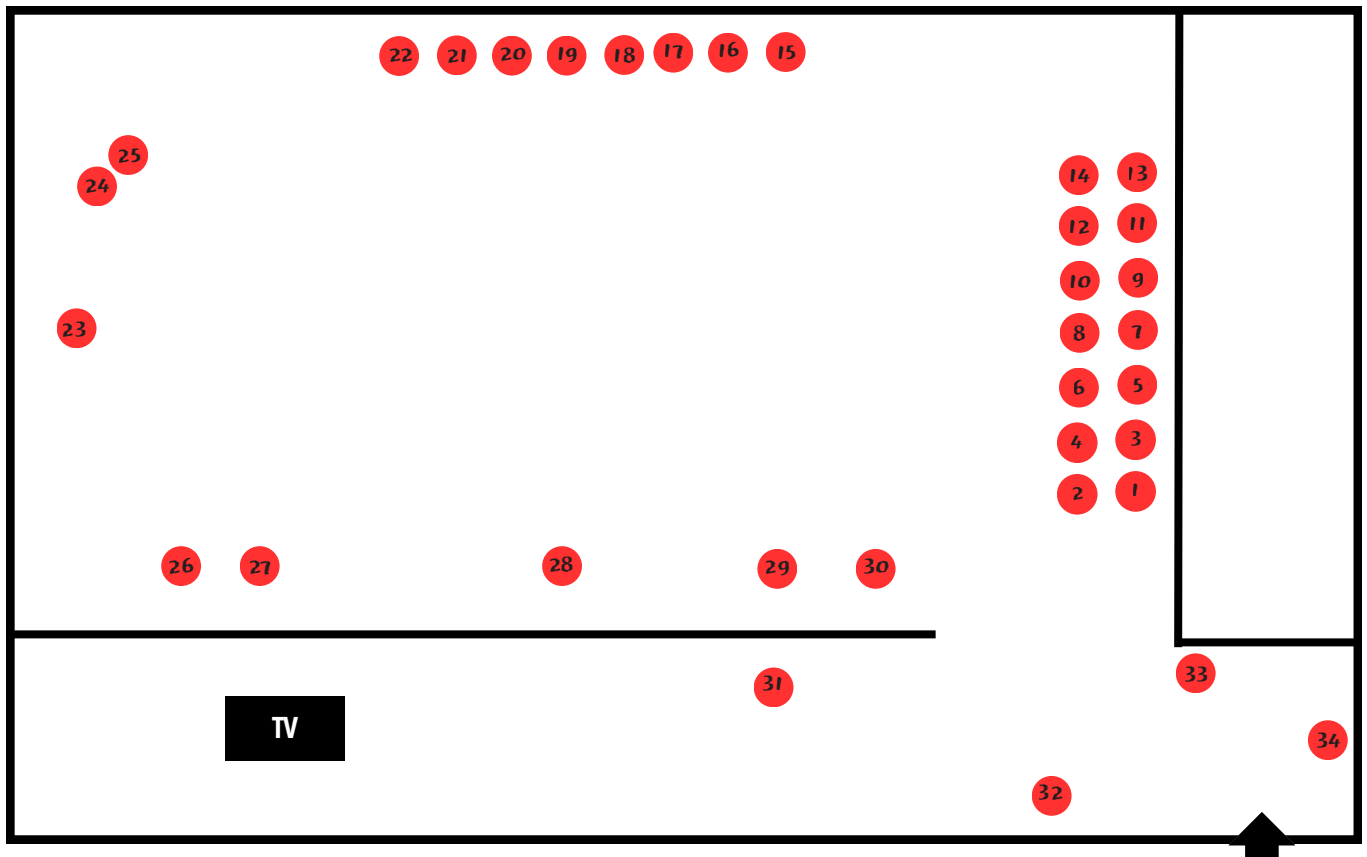


79, jahamun-ro, Jongno-gu, Seoul 03035,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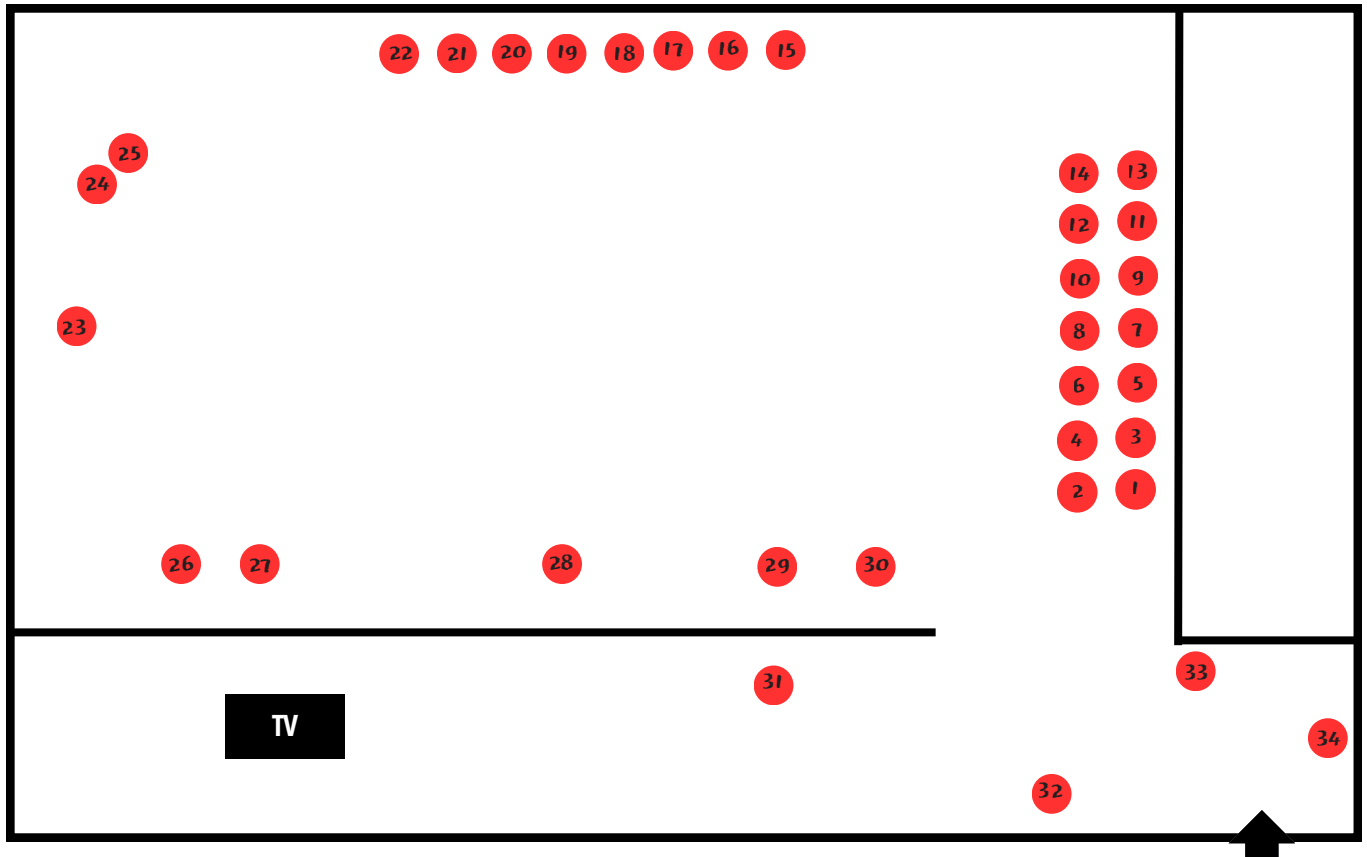
Instagram@hflux_gallery



- 01 Superpositio D011 / 2025 / Mixed Media: Paper on Oil paint and Photography /26 x 18cm
- 02 Superpositio D012 / 2025 / Mixed Media: Paper on Oil paint and Photography /26 x 18cm
- 03 Superpositio D013 / 2025 / Mixed Media: Paper on Oil paint and Photography /26 x 18cm
- 04 Entaaglement D014 / 2025 / Mixed Media: Paper on Oil paint and Photography /26 x 18cm
- 05 Superpositio D015 / 2025 / Mixed Media: Paper on Oil paint and Photography /26 x 18cm
- 06 Superpositio D016 / 2025 / Mixed Media: Paper on Oil paint and Photography /26 x 18cm
- 07 Superpositio D017 / 2025 / Mixed Media: Paper on Oil paint and Photography /26 x 18cm
- 08 Superpositio D018 / 2025 / Mixed Media: Paper on Oil paint and Photography /26 x 18cm
- 09 Entaaglement D019 / 2025 / Mixed Media: Paper on Oil paint and Photography /26 x 18cm
- 10 Superpositio D020 / 2025 / Mixed Media: Paper on Oil paint and Photography /26 x 18cm
- 11 Superpositio D021 / 2025 / Mixed Media: Paper on Oil paint and Photography /26 x 18cm
- 12 The Sky & Superposition D022 / 2025 / Mixed Media: Paper on Oil paint and Photography /26 x 18cm
- 13 Entaaglement D023 / 2025 / Mixed Media: Paper on Oil paint and Photography /26 x 18cm
- 14 Superpositio D024 / 2025 / Mixed Media: Paper on Oil paint and Photography /26 x 18cm



- 15 Longing / 2025 / Mixed Media: Canvas on Oil paint and Photography / 60.6 x 72.7 cm
- 16 Water Becomes Cloud / 2025 / Mixed Media: Canvas on Oil paint and Photography / 60.6 x 72.7 cm
- 17 Sunset Is On Face / 2025 / Mixed Media: Canvas on Oil paint and Photography / 60.6 x 72.7 cm
- 18 Earthworms Apear After The Rain / 2025 / Mixed Media: Canvas on Oil paint and Photography / 60.6 x 72.7 cm
- 19 Weight Is Different / 2025 / Mixed Media: Canvas on Oil paint and Photography / 60.6 x 72.7 cm
- 20 Time To Go To School / 2025 / Mixed Media: Canvas on Oil paint and Photography / 60.6 x 72.7 cm
- 21 Recumbere / 2025 / Mixed Media: Canvas on Oil paint and Photography / 60.6cm x 72.7cm
- 22 Bent Back View / 2025 / Mixed Media: Canvas on Oil paint and Photography / 60.6cm x 72.7cm
- 23 Entaaglement/ 2025 / Mixed Media: Canvas on Oil paint and Photography / 162.2 x 130.3cm
- 24 From Briquette 1 / 2025 / Mixed Media: briquette ash, resin / 18 x 18 x 18 cm
- 25 From Briquette 2 / 2025 / Mixed Media: briquette ash, resin / 25 x 25 x 25 cm
- 26 Flowing Down / 2024 / Mixed Media: Canvas on Oil paint and Photography / 100 x 68 cm
- 27 Flowing Down The Black / 2024 / Mixed Media: Canvas on Oil paint and Photography / 100 x 68 cm
- 28 The Store On The Moon / 2025 / Mixed Media: Canvas on Oil paint and Photography / 100 x 80.3cm



29 Sewing The Future / 2025 / Mixed Media: Canvas on Oil / 72.7 x 60.6 cm

30 Cloud, Rain, Wind, Body, Wind And Body / 2025 / Mixed Media: Canvas on Oil paint and Photography / 72.7 x 60.6cm

31 Cut Down The Tree, Make Clubs / 2025 / Mixed Media: Canvas on Oil paint and Photography / 130.3 x 162.2cm

32 Entaaglement D025 / 2025 / Mixed Media: Paper on Oil paint and Photography / 18 x 26 cm

33 Corpus Meum Ventus / 2025 / Mixed Media: Paper on Oil paint and Photography / 40 x 50 cm

34 Where Then 3 / 2025 / Mixed Media: Canvas on Oil paint and Photography / 60.6 x 72.7 cm